



2026 VISION

훈훈한 구역, 함께 키우는 아이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옴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성경이야기

친구들, 친구가 “선생님 몰래 이것 좀 하자!”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재미있어 보이거나 친구들이 다 함께하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 “무엇이 옳은 일이지?” 하고 생각해 봐요. 오늘 성경에는 어려운 순간에도 왕의 명령을 기억했던 한 사람이 등장해요.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다윗은 군대를 보내면서 요압과 지휘관들에게 한 가지를 특별히 부탁했어요.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려이 대우하라.” 압살롬은 다윗을 배신하고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지만, 다윗에게는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전쟁 중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가다가 머리가 큰 상수리나무에 걸려 움직일 수 없게 되었어요. 한 병사가 그 모습을 발견했어요. 요압은 그 사람에게 “왜 압살롬을 치지 않았느냐? 그랬다면 내가 상을 주었을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놀라운 대답을 했어요. 많은 은을 준다고 해도 압살롬에게 손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다윗 왕이 내린 명령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이에요. 눈앞의 보상보다 왕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요압은 결국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압살롬을 죽였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친구들이 모두 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따라가지 않는 용기가 필요해요. 거짓말하면 편해 보여도 정직을 선택하고, 미운 친구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어도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요. 이번 한 주도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라요!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요!”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예배순서

사 도 신 경 다 같 이

찬 송 낮은 자의 하나님 다 같 이

말 씬 봉 독 사무엘하 18:1~15절 다 같 이

설 교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요 설 교 자

말 씬 나 눔 다 같 이

합 심 기 도 다 같 이

축 복 기 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 기 도 문 다 같 이

★ 찬송과 공동 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찬 양



낮은 자의 하나님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해 주세요.

친구들의 말이나 눈앞의 이익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용기 있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나눔

1. 압살롬을 발견한 병사는 왜 요압이 상을 준다고 해도
압살롬에게 손대지 않았나요?

2. 친구들이 함께하자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니야”라고
말해야 할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